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Economy

제4628호 2021년 2월 8일 월요일

[종합]
우버-SKT
카카오에 정면승부
4월 택시서비스
02

코스피 3120.63 (0.00)

코스닥 967.42 (0.00)

금리(국고채 3년) 0.982 (-0.002)

환율(원·달러) 1123.70 (+5.20) 〈5일〉

三電, TSMC 겨눈다 오스틴공장 투자시동 美에 '세금감면' 요구

19조원 파운드리팹 증설 검토
20년간 9000억 세금감면 요청

TSMC 파운드리 추격 본격화
美 현지수주, 유통 다변화 기대

애플은 아이폰 초기 삼성전자에서 만든 반도체로 만들었지만, 최근에는 TSMC에 수주하고 있다. 사진은 2007년 출시된 아이폰. 삼성전자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장착했다. /애플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파운드리 사업 '아메리칸 드림'에 나선다. 한 때 애플 아이폰 핵심 부품을 만들었던 오스틴 공장 증설이 유력하다. 세계 최초 14나노 핀펫 공정에 이어, 새로운 '초격차' 기대감도 커진다.

7일 외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지방정부에 170억달러(한화 약 19조원) 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자리는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인근에 확보한 부지로, 건설 규모는 650㎢에 달한다.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 설비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대신 20년간 8억달러 (약 9000억원) 규모 세금을 감면해달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오스틴이 아니더라도 미국에 후보지들을 두고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전언이다.

삼성전자가 미국 투자를 확정한 셈이다. 1990년대 처음 오스틴에 D램 공장을 가동한 이후 20여년 만, 2011년 시스템LSI전용라인을 처음 풀가동한지 10년만이다.

외신들은 삼성전자가 결국 세금을 모두 감면 받기는 어렵겠지만, 70~80%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짓고 결국 오스틴에 투자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2분기 건설을 시작하면 2023년 3분기 가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새로운 오스틴 공장은 극자외선(EUV) 장비를 도입해 5나노 미만 첨단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시설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현재 오스틴 팹이 14나노 수준으로 다소 뒤쳐져있는 만큼, EUV 도입을 통해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현지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면 파운드리 시장 리더십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대만 TSMC와 파운드리 부문 '2강'으로 떠오른 상황, 주요 팹리스가 위치한 미국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수주 활동을 벌일 수 있어서다.

파운드리 업계에서 현지화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개발과 양산 과정에서 양사간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고, 보안을 유지하기도 용이해서다. 미국에는 인텔과 애플, 엔비디아와 AMD를 비롯해 구글과 테슬라 등 첨단 반도체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위치해있다. 이미 경쟁사인 TSMC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을 짓기 시작해 2024년 완공을 예상하고 있으며, 애플과 엔비디아 등 굵직한 첨단 반도체 수주에 성공한 상태다.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도 과거 애플의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14나노 핀펫 공정도 오스틴 공장에서 처음 시도했다. 그러나 아이폰7에 장착되는 A10 프로세서부터 수주에 실패한 이후 여전히 구형 설비를 유지하고 있다.

'기술 유출'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뿐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로직을 개발하는 만큼, 기술을 빼돌릴 수 있다고 보고 수주를 꺼려했다고 지적해왔다. 삼성전자가 별도 법인에서 수나노대 첨단 반도체를 만들면 이같은 논란을 일부 잠재울 수 있다.

글로벌 리스크에서도 한층 자유로워질 수 있다. 미중무역분쟁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현지 생산 기지를 통해 유통망을 다변화할 수 있을뿐 아니라, 현지 정부와 소통도 한층 깊어지면서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생존 vs 방역… 영업제한 갈등 심상찮다

〈자영업자〉 〈정부〉

코로나發 영업금지조치 장기화에
'삭발투쟁'에 영업제한 불복 시위
정치권·정부, 특별법 등 논의 본격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타격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입은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이나 법 제정을 통한 손실보상이 언제 현실화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손실보상을 놓고 정부가 '소급 적용 불가' 입장을 펴고 있어 향후 법 제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영업금지, 영업제한 등이 장기간 이어지며 생존에 타격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영업제한 불복', '삭발 투쟁'을 하며 적극 호소에 나서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2개 자영업 단체로 구성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의 계속되는 영업시간 제한에 강력히 항의하는 뜻에서 이날을 포함해 8일, 9일 밤 12시까지 서울시내 특정 PC카페(PC방), 코인노래방, 호프의 문을 열고 시위에 나선다.

비대위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업종간 형평성과 합리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해야한다"면서 "생존의 한계상황까지 내몰린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이 간절하게 호소하기 위해 방역기준 불복 개점 시위를 사흘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는 수도권 내 음식점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오후 9시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비수도권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시 설 연휴가 끝나는 이달 14일 자정까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현행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은 '생존', 정부는 '방역'과 각각 싸우고 있는 사이에 재난지원금 추가 편성, 손실보상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에선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이동주 의원 등 22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민병덕 의원 등 63명),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등 11명) 등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내용이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에선 다소 차이가 있지만 '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집합제한,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금은 소급해 지급한다'는 내용도 모두 담고 있다.

〈4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

설 대목 맞은 농산물도매시장

설 연휴를 나흘 앞둔 7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 또는 선물용 과일을 구입하고 있다. /뉴시스

'규제완화' 공공재개발 후보지역 벌써 들썩

동대문 청량리역 교통개선 호재
답십리 래미안 단지 신고가 경신

정부가 2·4 부동산대책에서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재개발·재건축 등에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자 후보지역 집값이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래미안위브(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3억8000만원, 래미안미드카운티(전용면적 84㎡)도 14억75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경전철 우이신설역 인근에 있는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전용면적 84㎡)도 지난달 7억50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호가도 상승세다. 현재 래미안위브 전용면적 84㎡는 15억4000만원, SK북한산시티는 7억8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동대문구는 청량리역 교통개선 호재와 대형건설사의 브랜드 단지가 인근에 분양을 앞두고 있다. 청량리역의 경우 기존 1호선 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경춘선 외에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노선(GTX)-B·C 노선이 계획돼 있어 향후 서울 동북권 최고의 교통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신설1구역과 용두1-6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역으로 선정되며 최근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타고 있다. 강북구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재개발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강북5구역을 품고 있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는 "동대문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노선(GTX)노선 호재가 있는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재개발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다"라며 "청량리역롯데캐슬 SKY-L65의 경우 최근 전용면적 85㎡ 분양권이 12억원대에 팔리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신설1구역과 용두1-6구역이 공공재개발 지역 후보지로 선정되며 매수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중개업자의 설명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용적률 인센티브도 공공재개발 지역 개발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2·4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20%까지 늘려주고, 더 받는 용적률의 20~50%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2면에 계속〉

/정연우 기자 ywj964@